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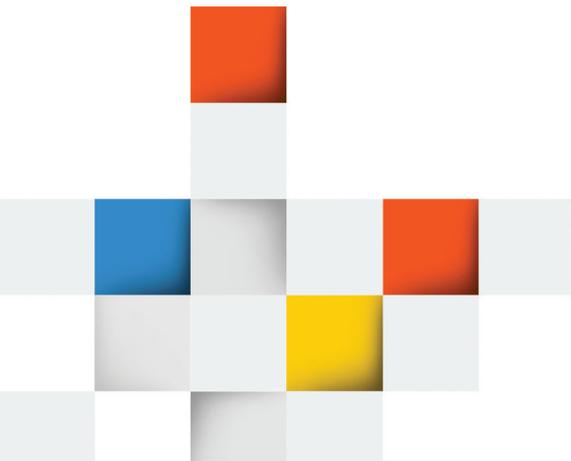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돌봄 상황

김주현 (충남대학교)

- 최근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사회정책이 청년정책 맥락에서 시도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 2020년 「인구총조사」 2% 표본자료의 13~34세 인구 중 1.3%인 15만 3,044명을 가족돌봄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추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집단 이외에 동일 연령대 청년들과 종사상 지위를 통한 경제활동 상황을 비교해보면, 18세 이하 미성년기와 24세 까지 초기 청년기까지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높다. 하지만 24세 이후 후기 청년기가 되면 가족돌봄청년의 미취업률이 더 높다. 전반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사회활동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가족돌봄청년이 돌봄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한번 가족을 돌보게 되면 후기 청년기까지 계속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 가족돌봄청년 중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에 미래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우울수준이 매우 높다.

족에서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돌봄 정책이 가족의 돌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돌봄정책은 주로 성인만을 돌봄 제공자로 가정하여 왔다. 2014년 아동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폐지된 ‘소년소녀가장’ 제도가 있었지만, 가족 내에서 오랜 기간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을 해 왔던 이들 아동·청소년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했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았다.

최근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이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과 돌봄 부담에 동시에 직면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정책적 제도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생애주기 상 교육과 훈련을 받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기의 가족돌봄청년들이 가족 돌봄으로 인해 생애주기과업을 수행하는 데 한

한국 사회의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돌봄에 대한 책임이 가



계가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나이든 부모를 간병하느라 일을 그만두는 현상인 ‘돌봄이직(개호이직)’이 사회적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국가 조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2001년 이후 10년 동안 가족돌봄청년의 수가 약 8만 7,000명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는 향후 한국의 가족돌봄청년 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김아롱·정익중, 2023).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가족돌봄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통계청 인구총조사(Census)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 상황을 통해 향후 이들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을 위한 함의를 찾아본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념

1990년대 초반 영국의 Young Carers Research Group에서 시작한 가족돌봄청년의 가족 내 역할과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여러 정책, 서비스, 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가족돌봄청년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김정현·박선영, 2023).

전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가족돌봄청년의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별로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지원 수준과 방식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돌봄청년을 정의하는 연령 기준은,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만 18세 이

하의 나이로,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은 만 25세 이하의 나이로 정하고 있다(김정현·박선영, 2023). 구체적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래 성인이 수행해야 할 가사 노동이나 가족 돌봄 등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아동’으로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정의한다. 한편 영국은 이들의 연령 기준을 넓혀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영 케어러(Young carer)’, 18세부터 24세 이하 또는 넓게는 30세까지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구분하기도 한다(허민숙, 2022).

한국에서는 학계보다 언론이 먼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주목했다. 개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 사례를 보여주는 서적과 이들의 삶을 보도한 다큐멘터리 등 미디어 자료가 등장했다. 그리고 22세 청년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2022년 2월 정부는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지원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등급자, 정신질환자 등 1)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과 2) 함께 거주하면서 3) 돌봄을 전담으로 책임지고 있는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명명하였다.

지자체의 경우 2022년 서울시와 광주시의회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주목받았고, 이후 2024년 10월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 5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긴급 의료, 건강관리,

교육, 생활, 주거 지원 등 자립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통해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가족돌봄실태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가족돌봄청년 규모 추정과 분석자료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영국은 2011년 인구총조사 결과 영국 전체에서 약 49만 1천 명에 달하는 2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규모를 추정했고 (Foley et al., 2022), 무급돌봄노동자 지원을 하는 영국의 Carers Trust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최소 37만 6천여 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허민숙, 2022).

〈표 II-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국가별로 조사대상의 연령 범주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청소년 인구의 5~8%가 가족돌봄에 참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무급 25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이 약 23만 5천 명에 이를 것이라 추산하는 보고가 있다(허민숙, 2022). 일본의 가족돌봄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 사람 중에서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의 수는 약 21만 명이고, 대상 연령을 15~18세로 한정하면 3만 7,1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안주영, 2022).

〈표 II-4〉 해외의 영케어러 규모 추정

국가	조사연령	영케어러 비율 (단위: %)
영국	11~18세	8.0
뉴질랜드	15~24세	8.0
스위스	10~15세	7.9
이탈리아	15~24세	7.2
스웨덴	14~16세	7.0
핀란드	18세 미만	6.3
네덜란드	13~17세	6.0
독일	12~17세	5.0

주: 1) 영케어러 비율은 각국의 조사연령 인구 대비 영케어러 추정 인구 비율임.
출처: 허민숙,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2022.
Kirsti, Hokkila, "핀란드 사례: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왜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2022.

본 연구는 2020년 「인구총조사」 2% 표본을 활용하였다. (1) 가구 내 돌봄 필요 가족원이 있고, (2) 돌봄이 필요 없는 중장년(35~64세) 가족원이 없어 가구 내 돌봄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3) 돌봄 필요 없는 13~34세 청년에 초점을 맞추었다. 돌봄 관계는 가족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가족과 남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족 아닌 사람이 돌봄 필요 가구원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돌봄 필요 여부'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제약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돌봄 필요'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 활동제약이 없거나 지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돌봄 필요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인구총조사」 2% 표본자료의 13~34세 청년 중 1.3%인 15만 3,044명을 가족돌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집단으로 추정하고 분석을 수행했다.



가족돌봄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령, 성, 교육수준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주당 15시간 이상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1.4%로, 통상 가족돌봄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과 달리 청년층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되었다(함선유, 2022). 반면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보고되었는데,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66.4%, 남성 33.6%).

2020년 「인구총조사」 2% 표본의 가족돌봄 청년집단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이 52.3%, 여성이 47.7%이다. 돌봄이 주로 가족 내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령을 구분해서 보면, 성별 차이가 확인된다. 남성은 25~34세 후기 청년집단의 구성비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고, 여성은 19~24세 초기 청년집단의 구성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 기준으로 나누어 봐도 남녀 차이가 확인된다. 남성 가족돌봄청년은 고등학교(36.1%), 대학교(4년제이상)(34.1%)가 많고, 여성 가족돌봄청년은 대학교(4년제이상)가 42.7%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5).

〈표 II-5〉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가족돌봄청년 분포, 2020

	남성		여성	
	(명)	(%)	(명)	(%)
연령				
13-18세	12,934	16.2	11,519	15.8
19-24세	20,242	25.3	24,002	32.9
25-34세	46,824	58.5	37,523	51.4
교육정도				
중학교	5,852	7.3	5,395	7.4
고등학교	28,861	36.1	19,402	26.6
대학교(2,3년제)	18,007	22.5	17,035	23.3
대학교(4년제이상)	27,280	34.1	31,212	42.7
전체	80,000	100.0	73,044	100.0

주: 1) 교육정도는 졸업인구 기준이며, 대학교(4년제이상)에는 대학원 졸업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 표본)」, 원자료, 2020.

가족구조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된 집단의 가족 상황을 가구주와의 관계와 세대유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가 남성 68.2%, 여성 6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구주의 손자녀(배우자)인 경우가 많았다(표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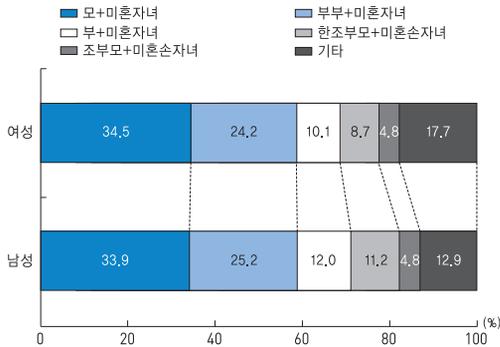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가구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가구의 세대 구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림 II-15]와 같이 다양한 세대 구성 중 3%를 넘는 주요한 유형만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어머니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구성이 전체 3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아버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10%가 약간 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표 II-6〉 성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가족돌봄청년 분포, 2020

	남성		여성	
	(명)	(%)	(명)	(%)
가구주(본인)	9,933	12.4	6440	8.8
배우자	748	0.9	6121	8.4
자녀	54,587	68.2	47,246	64.7
자녀의 배우자	152	0.2	438	0.6
손주 및 그 배우자	11,801	14.8	9,279	12.7
증손주 및 그 배우자	0	0.0	98	0.1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1,949	2.4	2,398	3.3
형제자매의 자녀 및 그 배우자	216	0.3	161	0.2
기타 친인척	614	0.8	863	1.2
전체	80,000	100.0	73,044	100.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 표본)」, 원자료, 2020.

〔그림 II-15〕 성 및 세대 구성별 가족돌봄청년 분포, 2020



주: 1) 기타는 3% 미만의 세대 구성을 합산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 표본)」, 원자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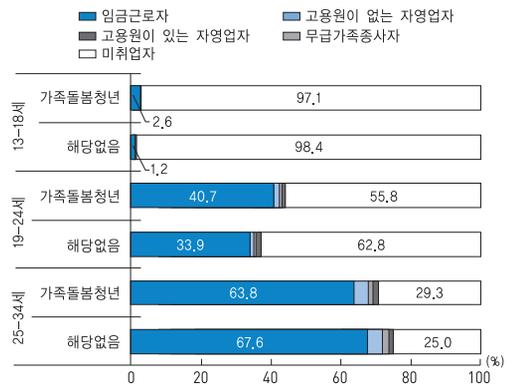
가족돌봄청년이 주로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구성은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로 25% 정도로 나타났다. 조부모 1명과 손자녀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네 번째로서 10% 안팎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가족돌봄청년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13~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97.1%인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19~24세까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44.2%로 늘어난다. 후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25~34세는 63.8%가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인구총조사」 2% 표본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집단 이외에 동일 연령대 청년들과 종사상 지위를 통한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해 보면 [그림 II-16]과 같다. 18세 이하 미성년기와 24세까지 초기 청년기까지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집단보다 더 높지만, 후기 청년기가 되면 가족돌봄청년의 미취업율이 더 높다. 즉 가족돌봄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후기 청년의 임금근로자

〔그림 II-16〕 연령 및 가족돌봄청년 여부별 종사상 지위 분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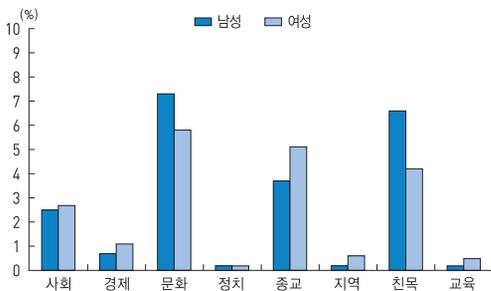
주: 1) 미취업자는 조사대상 일주일(2020.10.25.~10.31.)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자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 표본)」, 원자료, 2020.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가족 돌봄과 취업 준비를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취업한 초기 청년기의 가족돌봄청년의 임금근로 일자리의 질이 어떤지 자세히 확인을 해 봐야 한다. 또한, 이들이 후기 청년기에 직업활동의 안정기로 나아가는 문제에 관심이 필요하다.

가족돌봄청년의 전반적인 사회활동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 II-17]에서 다양한 단체 활동 참여율을 살펴 보았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간 8가지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중 하나라도 참여했다고 응답한 가족돌봄 청년은 남성이 17.6%, 여성이 16.9%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집단 이외 동일 연령대 청년들의 참여율이 25.8%인 것과 비교해 보면, 가족돌봄청년의 단체활동 참여율이 더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참여단체별 비율을 남녀 비교해서 보면, 남성은 문화단체, 친목 단체 참여율이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종교 단체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림 II-17] 가족돌봄청년의 단체활동 참여율, 2020



주: 1) 가족돌봄청년의 단체활동 참여율은 중복응답 가능 항목임
 2) 만 나이 20세이상 응답항목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 표본)」, 원자료, 2020.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상황

위에서는 2020년 「인구총조사」의 2%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돌봄청년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고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현재 구체적인 돌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조사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사의 1차,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는 2022년 학교와 교육부 등 기관의 온라인 링크와 조사회사의 온라인 패널을 통해 19~34세의 청년을 조사 대상으로 확보했다. 가족돌봄 필요여부와 제공 여부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1차로 파악하고, 2차 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상황을 조사하였다.

돌봄 제공 유형 및 돌봄 주기와 기간

먼저 1차 조사자료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제공하는 돌봄의 유형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직접 돌보는 유형이 많다. 하지만,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18세 이하 미성년의 경우에는 직접 돌보기만 하는 유형이 68.8%로 다수를 이루지만 4명 중의 1명은 직접 돌보면서 경제적 부양도 함께 겪어지고 있다. 연령이 높아져 후기 청년기가 될수록 직접 돌보면서 경제적 부양도 함께하는 유형이 50% 이상으로 늘어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II-7).

〈표 II-7〉 가족돌봄청년의 연령별 돌봄 제공 유형 분포, 2022

(단위: %)

	직접 돌봄만	경제적 부담만	직접 돌봄 + 경제적 부담	계
전체	52.2	6.6	41.2	100.0
13-18세	68.8	5.2	26.1	100.0
19-34세	41.2	7.5	51.3	100.0
19-24세	47.1	4.5	48.5	100.0
25-29세	40.6	7.6	51.8	100.0
30-34세	37.8	9.4	52.8	100.0

주: 1) 1차 조사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1,797명의 응답값을 집계한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2.

〈표 II-8〉을 보면 가족돌봄청년의 74.4%가 정기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으며, 돌봄 기간은 6개월 이상 장기로 돌보고 있는 상황(61.5%)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보면, 후기 청년기에 해당되는 집단이 정기적 돌봄을 장기로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표 II-8〉 가족돌봄청년의 연령별 돌봄주기와 돌봄 기간 분포, 2022

(단위: %)

연령별	돌봄 주기			돌봄 기간		
	비정기적 돌봄	정기적 돌봄	계	단기 돌봄	장기 돌봄	계
전체	25.6	74.4	100.0	38.5	61.5	100.0
13-18세	31.3	68.7	100.0	52.2	47.8	100.0
19-34세	21.7	78.3	100.0	29.4	70.6	100.0
19-24세	22.3	77.7	100.0	36.1	63.9	100.0
25-29세	19.0	81.0	100.0	25.7	74.3	100.0
30-34세	23.5	76.5	100.0	27.7	72.3	100.0

주: 1) 1차 조사를 완료한 가족돌봄청년 1,802명의 응답 결과이며, 경제적 부담만 하는 청년(18명)은 돌봄 주기 문항에서 제외함.

2) '정기적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정기적(규칙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임.

3) 돌봄을 제공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단기 돌봄', 6개월 이상이면 '장기 돌봄'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2.

는 한번 가족을 돌보게 되면 후기 청년기까지 계속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돌보는 가족과 돌봄 활동 내용

한편, 돌보는 가족과 돌봄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9〉와 같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은 주로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등록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나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족돌봄청년의 가족 상태는 이와 관련되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가족을 돌보는 활동의 주요한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집안일이며,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그 다음으로

〈표 II-9〉 돌보는 가족 상태 및 돌봄 활동 내용, 2022

1) 가족 상태

	중증 질환	등록 장애인	정신 질환	장기 요양인정 등급	치매 진단
빈도(명)	208	196	173	157	95
비율(%)	25.7	24.2	21.4	19.4	11.7

2) 돌봄 활동 내용

	집안일 하기	함께 시간 보내기	약 챙기기, 병원 동행	자기 관리 돕기	이동 돕기
빈도(명)	556	516	426	317	311
비율(%)	68.6	63.7	52.6	39.1	38.4

주: 1) 2차 조사를 완료한 가족돌봄청년 810명의 응답 결과이며, 중복 응답의 결과이므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2.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 가족의 대부분이 건강 문제가 있으므로 약을 챙기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활동도 주요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삶의 만족도와 미래설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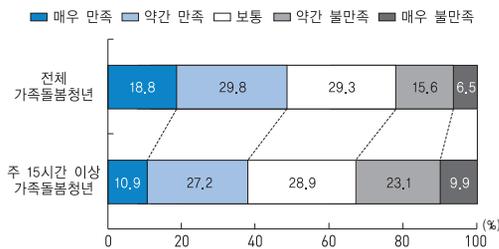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미래설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삶의 질을 살펴볼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약 22%가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전체 가족돌봄청년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약 10% 가까이 되었고,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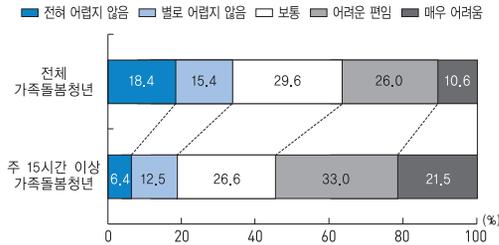
가족돌봄청년 중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 진로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6.6%이고, 주 15시간 이상 가족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4.5%가 미래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18).

[그림 II-18]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만족도 및 미래계획 어려움 정도, 2022

1) 삶의 만족도



2) 미래계획 어려움 정도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임.

2) 미래계획 어려움 정도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2.

정신적 웰빙

마지막으로 <표 II-10>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집단의 정신적 웰빙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우울수준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2022)는 CES-D 척도 중 11개 문항으로 우울수준을 조사하고, 개인별 종합점수가 16점보다 높으면 우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61.5%가 우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합점수는 18세 이하 미성년 청년의 경우 조금 낮지만 19.9점으로 우울 수준을 상회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가족돌봄 시간이 많은 주 15시간 이상 가족돌봄을 하는 경우에 23.8점으로 우울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에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생애과정의 안정적 이행에서 지체나 어려움을 초래하여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수

〈표 II-10〉 가족돌봄청년의 우울수준, 2022

	우울 비율 (%)	점수(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61.5	21.1	13.7
연령별			
18세 이하	53.7	19.9	15.4
19-34세	63.2	21.3	13.3
돌봄시간별			
주 15시간 미만	56.8	19.4	13.2
주 15시간 이상	68.9	23.8	14.1

주: 1) 2차 조사를 완료한 가족돌봄청년 810명의 응답 결과임.
 2) 응답자별 점수는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등 11개 문항에 대해 '극히 드물다(0점)'부터 '대부분 그랬다(3점)' 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합산하여 11을 나누고 20을 곱한 값임.
 3) 우울 비율은 가족돌봄청년 응답자 중에서 우울하다고 판정된 청년의 비율로, 개인 점수가 16점보다 높으면 우울한 것으로 정의함.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2.

행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일관되게 청소년기부터의 장기간의 가족 돌봄은 가족돌봄청년의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2020년 「인구총조사」 2% 표본 자료의 13~34세 청년 중 가족돌봄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청년집단을 추출하여 분석한 본 연구에서도 가

족돌봄청년은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질 측면에서 문제 상황이 나타난다. 다중적 역할 수행에 뒤따르는 부담의 과부하는 나아가 청(소)년기에 가족돌봄에 따른 기회비용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여전히 확실하지 않으며 가족돌봄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영국 통계청은 가족 자원 조사(Family Resources Survey, FRS)를 실시해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을 매우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봄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돌봄청년뿐 아니라 전반적인 비공식적 돌봄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지원 정책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아롱·정익중, 2023, 영 케어러의 가족 돌봄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70(1), 77-105.
- 김정현·박선영, 2023, 영 케어러 대응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영국, 호주, 스웨덴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0(1), 251-280.
- 허민숙, 2022,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NARS) 현안분석, 242호, 1-25.
- 안주영, 2022, 일본의 영 케어러 현황과 대책, 국제사회보장리뷰, 겨울호 Vol. 23, 16~27.
- Kirsi Hokkila, 2022, 핀란드 사례: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왜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겨울호 Vol. 23, 28~34.